



프랑스 노동조합 CGT 새 위원장 선출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박사과정(노동경제학))

■ 머리말

2013년 3월 22일, 툴루즈(Toulouse)에서 열린 세제테(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 노동총연맹, 이하 CGT) 50회 총회에서 티에리 르퐁(Thierry Lepaon)이 1947년 이후 CGT의 여섯 번째 위원장¹⁾으로 공식 선출됐다. CGT는 프랑스 근로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노동단체이면서,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위원장 교체는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한번 선출되면 연임을 통해 장기간 유지된 사례가 많기에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CGT의 현 위치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새 위원장의 선출에 따라 변화 가능한 CGT의 전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CGT의 위기

프랑스에는 현재 10개가 넘는 노동단체가 존재하지만, 선거²⁾를 통해 대표성을 인정받은 5개의 노조만이 단체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에 따른 지지도는 <표 1>과

1) Le Monde(2013. 3. 22), "Thierry Lepaon a été élu secrétaire général de la CGT." CGT의 역사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의 조직을 갖춘 것은 1947년 이후이다.

2) 노사분쟁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의 자문위원을 선출하는 선거(Élection prud'homale)로 5년

같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CGT는 1895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가입자 수에 있어서 2011년 기준, CFDT³⁾가 86만 3천여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⁴⁾ CGT는 69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가입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1970년대 중반 230만가량의 가입자 수에 비하면 현재의 수치는 CGT의 위기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더불어 내부적인 위기도 존재한다. 조직 내 다양한 계파의 분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 유럽헌법 채택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에서 베르나 티보(Bernard Thibault) 위원장은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CGT 전국연맹위원회(CNN)는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프랑스의 경기 침체와 기업노조의 자율성 증가로 인해 CGT의 조직적 응집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⁵⁾ 한편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 특히 CFDT의 급부상에 따라 - CGT의 입지는 축소되었다. 2007년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의 협상 공간은 축소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간 관계를 긴밀하게 했지만 동시에 이들 사이의 차이를 일시적으로 은폐시켰다. 그리고 이 차이는 2012년 10월부터 시

〈표 1〉 프랑스 노동조합 지지율(2008년)

CGT	CFDT	CGT-FO	CFTC	CFE-CGC	UNSA	Solidaires	기타
33.8%	22.1%	15.9%	8.9%	8.2%	6.2%	3.8%	1.0%

자료 : 노동부.

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로, 이 선거 결과를 통해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3) 세에프데테(민주적프랑스노동연맹,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는 1919년에 프랑스기독교노동자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 CFTC)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해방 이후 노동조합의 탈종교화를 지지하는 소수그룹들이 1961년 다수파를 형성하게 되고,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64년이다.

4) CFDT 홈페이지 (http://www.cfdt.fr/jcms/asp_5025/la-cfdt-en-10-points).

5) 이는 IRES(경제사회연구소) Jean-Marie Pemot가 Le nouvel observateur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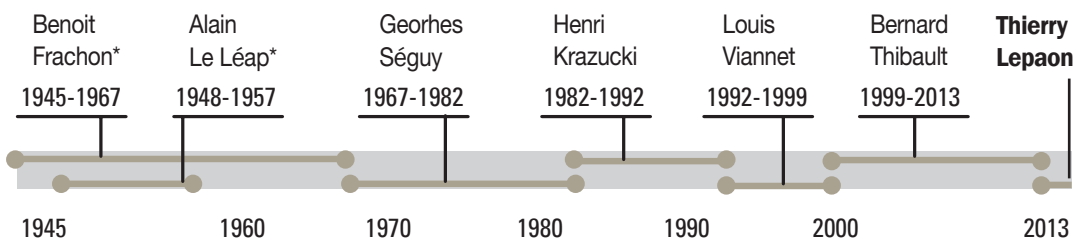
작된 고용안정화를 위한 단체협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프랑스 제1 노동조합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⁶⁾

■ 전임 위원장 베르나 티보에 대한 평가와 신임 위원장 티에리 르퐁의 경력

2012년 10월 16일 CGT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티보는 티에리를 후보로 추천했고,⁷⁾ 위원회는 42표의 찬성과 7표의 기권으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2012년 11월 노동조합의 의회적인 전국연맹위원회는 그를 공식적인 후보로 추대함으로써 오랜 계승 분쟁을 종결시켰다. 이어 2013년 3월 50회 CGT 총회를 통해 그는 신임위원장으로 발탁됐다.

1999년 46회 총회에서 공식적인 CGT 지도자로 선출된 티보(Thibault)는 세 차례의 재임을 통해 약 14년 동안 CGT의 개혁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에 대한 공통된 평가는 그동안 그가 CGT의 과격한 이미지를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당선은 CGT가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선출한 최초의 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그림 1] 프랑스 역대 CGT 위원장(1945~2013년)



주: 1945년부터 1957년 사이는 위원장 자리가 두 석이었음.

6) *Ibid.*

7) 티보가 처음 지목한 그의 후계자는 간호사이자 보건연맹 위원장인 Nadine Prigent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CGT의 정치색을 열게 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문제 해결이라는 개혁 노선을 취했다. 그 결과 CGT는 기업운영위의 단체협상 결과에 서명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다. 하지만 이번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CGT는 처음으로 조직 내 계파 간의 갈등과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한편 그의 임기 동안 전통적인 제조업과 기업노조에 기반한 CGT가 불안정 노동 증대, 하청 및 파견 확대 등의 노동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및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티보는 CGT 100만 가입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 가입자 인구는 69만여 명으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 그리고 2012년 5월 대선 당시, 티보 위원장은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사르코지 후보의 낙선을 위해 올랑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당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래, CGT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르코지 연임을 반대하는 정서를 대변한 것이었지만, 이는 조직 내부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나이 53세인 CGT 신임 지도자 티에리 르퐁은 17세의 나이에 불도저 용접공으로 직업 활동을 시작했으며, 같은 나이에 CGT에 가입했다. 하지만 조합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며,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낮은 인물이다. 몇 차례의 이직 후 1983년 물리빅스 공장에 입사하여 2001년 퇴사(구조조정에 따른 해고)까지 약 20년간의 경력이 그의 마지막 현장활동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회사 내 CGT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으며, 해고 이후 2001년부터는 노동조합 조직활동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섭자로 활동했으며, 2010년부터는 경제사회환경 자문위원회(CESE) 소속 CGT 대표자를 역임했다. 이러한 그의 경력 때문에 그에 대한 언론의 평가도 조금씩 다르다. ‘개방형’, ‘실리추구형’, ‘대화형’ 인물이라는 것이 다수 언론들의 시각이기도 하지만, ‘완고’하다는 시선도 존재하다. 또한 그의 폭넓은 대인관계를 두고 ‘프랑 마송(Franc-maçon)’⁸⁾이라는 입소문이 있기도 했지만, 그는 공식석상에서 이러한 추측을 일축했다.

8) 영어 표현으로 프리메이슨리(Freemasonry).

■ 몇 가지 쟁점 사항

정당 및 정부와의 관계

그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공산당(PCF) 당원이지만,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는 공산당의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사회당의 여름학교에도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좌파 정당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CGT가 좌파전선⁹⁾의 전위부대가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나타난 대응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회당 정부 출범 이후, PSA(푸조자동차)와 Goodyear(타이어회사)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CGT의 실망감은 높아졌으며, 당선자는 “사르코지의 연장선”이라는 표현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2013년 1월 CGT와 FO¹⁰⁾를 제외한 세 노동총의 서명으로 가결된 고용협약을 두고 “사악한, 소수에 의한,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협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총회 연설에서 그는 이 협약을 철회시키기 위한 4월 대규모 단체 행동을 호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CGT와 정부 사이에 형성된 긴장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번 총회에서 CFDT에 대한 비난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다수의 언론들은 보도했다. ‘배신자’라는 표현과 함께 이 단체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 안정화를 둘러싼 협상 당시 CFDT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

9) 200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선거동맹 정당이다. 현재 하원 10석, 상원 19석, 그리고 유럽의회의 4석을 차지하고 있다.

10) 노동자의 힘(공식 명칭은 노동총연맹-노동자의 힘 :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 Force ouvrière 'CGT-FO). FO는 공식적인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서는 CFDT와의 결별을 주장하며 신임 위원장이 제출한 보고서의 ‘단결된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CGT가 추구하는 통일된 행동을 강조하면서 “CFDT와 적당한 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단절은 없다”고 밝히며, 동시에 “FO와의 통합 역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분간 CGT와 CFDT의 갈등 관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5월의 노동절 행사를 앞두고 이 두 노총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고용협약에 관한 입장

이번 총회에서 CGT의 방향 및 노선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으며, 지난 1월 합의에 도달한 고용협약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고용 및 직업 교육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새로운 위원장 역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4월 초에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협약은 올랑드 정부가 취임 후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정책 중의 하나였으며, 2013년 1월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른 협약이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화(해고 절차의 간소 및 용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5개 노총 중 제1 노총인 CGT와 제3 노총에 해당하는 FO가 서명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이웃나라인 독일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조합을 강하게 압박하는 의제였다.¹¹⁾ 이에 대해 신임 위원장은 3월 14일, 위마니테 디망슈(L’Humanité Dimanche)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3월 13일 레제코(Les échos)와의 인터뷰에서 “CGT가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 「프랑스 고용안정화를 둘러싼 노사합의안 도출과 그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11(2) 참조.

■ 맺음말

8%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10%를 살짝 웃도는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율, 여기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프랑스 산업의 위기(규모 축소, 공장 폐쇄 및 이전)와 그에 따른 고용 사정의 악화 등은 노동조합의 위치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프랑스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GT의 위기는 프랑스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신임 위원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그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위원장의 교체로 인한 CGT의 노선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총회에서 그의 선출에 따른 “중대한 변화는 기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존 CGT의 “전략과 교섭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식되고 있는 CGT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220만 명의 근로자들 중 3.1%(실제 활동 중인 조합원 기준으로 2.5%)¹²⁾ 정도에 머물러 있는 CGT 가입률이 그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젊은층 근로자들을 끌어안는 노력 역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지적되어온 과제이다. 따라서 신임 위원장의 예상 가능한 행보는 조직의 단속과 더불어 확대에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4월부터 시작되는 고용협약 반대를 위한 전국적 단체행동을 얼마나 조직력 있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CFDT와의 갈등, 좌파전선과의 연대 등의 문제 역시 프랑스 제1 노동조합인 CGT와 신임 위원장인 티에리 르퐁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141**

12) Le Monde(2013. 3. 16), “La CGT veut s’imposer en étant moins radicale”.

참고문헌

- Le Monde(2013. 3. 16), “La CGT veut s’imposer en étant moins radicale”.
- _____ (2013. 3. 22), “Les délégués CGT entérinent la stratégie de Thierry Lepaon”.
- _____ (2013. 3. 22), “Thierry Lepaon é été élu secrétaire général de la CGT”.
- _____ (2013. 6. 16), “La CGT sous Bemard Thibault, un recentrage réformiste inachevé”.
- Le nouvel observateur(2013.3.15), “CGT : les années Thibault, une mue et des échecs”.
- _____ (2013. 3. 16), “CGT : les défis de Thierry Lepaon”.
- _____ (2013. 3. 16), “Thierry Lepaon, le nouveau Bemard Thibault”.
- _____ (2013. 3. 22), “Syndicalisme : Lepaon versus Berger”.
- Les échos(2013. 2. 28), “CGT : Thierry Lepaon veut s’inscrire ‘dans la continuité’ de Bemard Thibault”.
- _____ (2013. 3. 22), “CGT : Thierry Lepaon s’entoure d’un bureau élargi et renouvelé”.
- Le Point(2012. 10. 16), “CGT – Thierry Lepaon choisi pour succéder) Bemard Thibault”.
- Challenges(2012. 10. 16), “Thierry Lepaon, le nouveau Bemard Thibault”.
- Le Parisien(2013. 3. 22), “CGT : Thierry Lepaon a été élu secrétaire général”.
- Libération(2013. 3. 17), “CGT : Thierry Lepaon, bourru d’ambitions”.